

명함도 못 내밀었어. 그런데 경영진을 겨우 설득해 ‘지옥의 레이스’라 불리는 르망24에 처음 출전하기로 한 거야.

아이어코카는 6연패를 차지한 페라리에 대항하기 위해 이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 캐럴 셀비와 고집불통이지만 실력과 열정은 최고인 레이서 켄 마일스를 영입했어. 그리고 마침내 높은 장벽을 넘어 페라리랑 붙어서 이겼잖아. 그때 출전했던 차량이 GT40이고, 이 스포츠카 엔진을 머스탱 Mustang에 얹고 디자인을 개선한 게 하락세의 포드 이미지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지.

미국의 경영자가 〈타임〉 표지에 실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어코카는 세 번이나 나왔어. 머스탱을 성공시켜서 한번, 크라이슬러로 이적한 후 미니밴을 성공시켜서 두 번, 그리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를 역설한 애국자로 세 번째 표지를 장식했지. 2019년에 94세 일기로 사망했는데, 당시 〈뉴욕타임스〉의 부고 기사를 보니 “비전을 가진 이 자동차 제조업자 (visionary automaker)가 포드를 살려냈고, 크라이슬러를 살려냈고, 미국산 제품을 살려냈다”라고 썼더라.

내가 그동안 수많은 경영자를 만나봤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성공요소는 딱 두 가지야. 상상력과 추진력.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상상해서 비전을 품고, 비전을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더라고.

비전은 목표를 향해 독자적이고 동시에 협력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침이 되는 ‘보이지 않는 손’이야. 리더는 구성원에게 끊임 없이 비전과 희망을 주어야 하지. 비전과 희망을 담은 리더의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실천으로 옮기는 추진력이 구성원들을 즐겁게 일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니.

빌 게이츠의 여러 명언 중에서 내가 가슴에 담아두는 말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 앞으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한 목표를 세우면서,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Most people overestimate what they can do in 1 year, and underestimate what they can do in 10 years).”